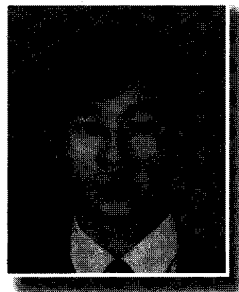


8월의 사슴 사양관리



김 상 우 연구사
축산기술연구소

◇ 암사슴의 사양관리

암사슴의 사양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포유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여름철은 고온 다습한 관계로 사료가 부패될 가능성이 많아지며 변질된 사료를 섭취하면 설사를 하게 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먹이통과 주위는 항상 청결하게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개체 사양이 불가능한 사슴의 집단사육 시에는 항상 과비한 사슴과 사슴의 사회적 서열에서 끝에 있는 사슴들은 사료의 섭취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마르게 된다. 가급적이면 허약한 사슴은 격리하여 사육하므로서 가을철 정상적인 시기에 교미가 이루어지게 하고 충분한 사료급여로 가을철 발정기에 대비한다.

품종에 따라서는 레드디어와 엘크는 9월 중순부터 번식계절이 시작되므로 8월의 고

영양 사양은 번식률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8월과 9월이 암사슴에서는 가장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가올 번식계절에 대비해야겠다.

포유기 동안 새끼의 사육관리를 잘한다면 번식계절이 오기 전에 새끼의 이유가 가능하며 발정기가 되기 전에 이유를 실시하는 것은 번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 숫사슴의 사양관리

8월이 되면 성록의 경우 1차 절각이 거의 끝이 나며 1세 사슴의 절각과 일부 재생빨의 절각이 있게 된다. 사슴의 빨 주기는 광주기에 영양을 받지만 첫빨의 성장은 광주기와 무관하게 자란다.

사슴빨의 성장은 보통 115일 정도 자라며 성장 후반기가 되면 갑자기 각질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재생빨의 절각은 녹용의 상



▲ 숫사슴은 번식계절이 되면 자발적인 사료섭취량 저하와 함께 체중의 감소가 일어 난다

태를 보아가며 너무 각질화가 진행되기 전에 절각을 하여야 한다.

간혹 1차 절각시 불량한 지혈 및 처치로 절단 부위에 염증이 생겨 재생털의 중앙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생적인 지혈로 성장점이 죽지 않게 한다.

8월이 되면 종족으로 사용할 사슴도 특별관리를 하여 번식계절 동안 체력의 저하로 인한 번식을 저하를 미리 막아야겠으며 번식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고영양 사양으로 체중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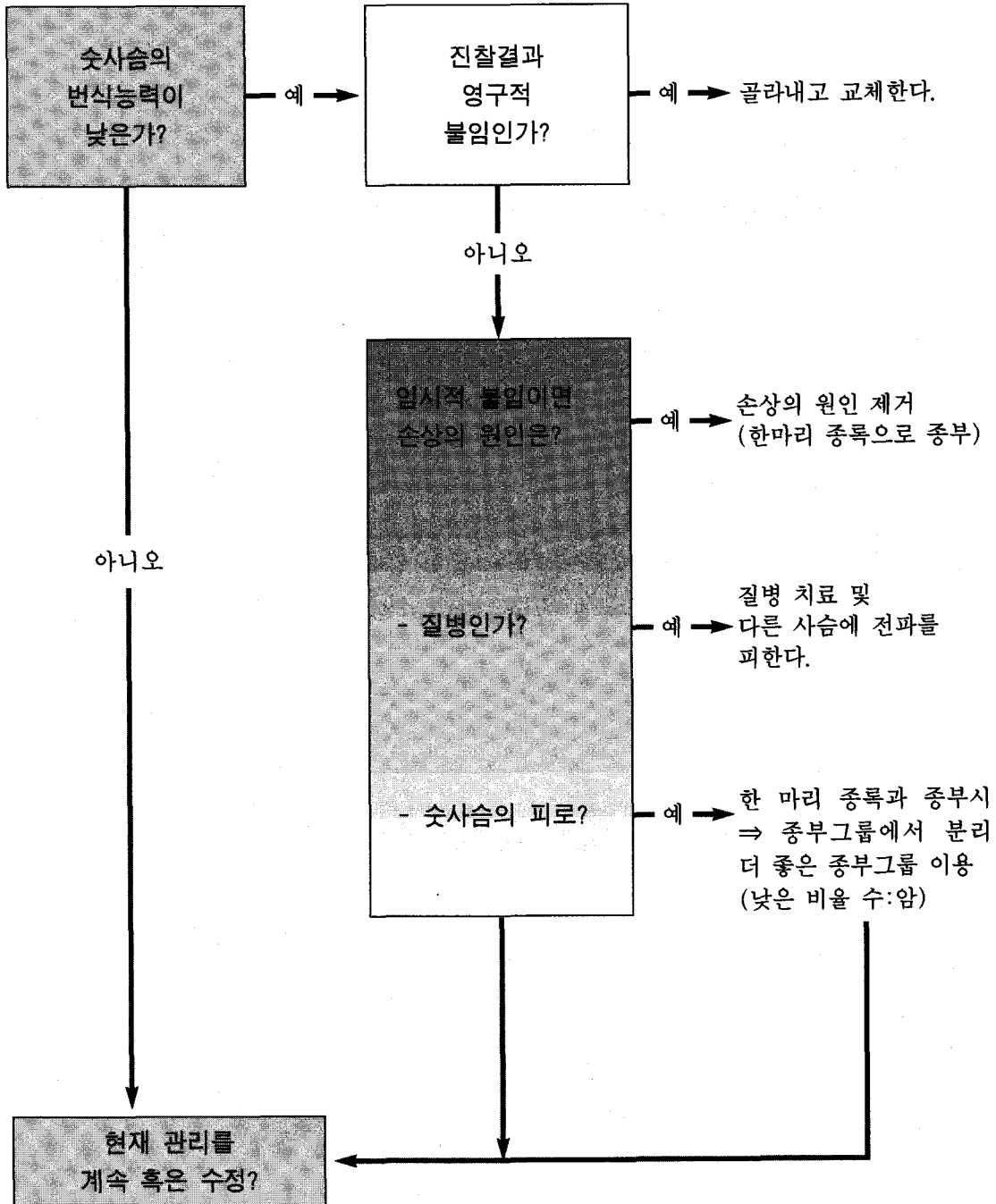
숫사슴은 번식계절 직전까지 체중의 증가가 일어나며 번식계절이 되면 자발적인 사료섭취량 저하와 함께 체중의 감소가 일어난다. 보통 번식계절이 시작되고부터 한

달 사이에 체중의 감소는 급격히 일어나 보통 15%정도의 체중감소가 일어난다.

녹용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 중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육종이므로 번식계절이 되기전 품종의 개량에도 신경을 기울여 근친교배를 방지하고 우수한 개체를 종족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한 자육의 생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 종족 이용시 유의점

- 사슴은 품종별로 번식특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품종별 번식특성을 파악한다.
- 종족의 선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할 사



<그림 1> 숫사슴의 번식력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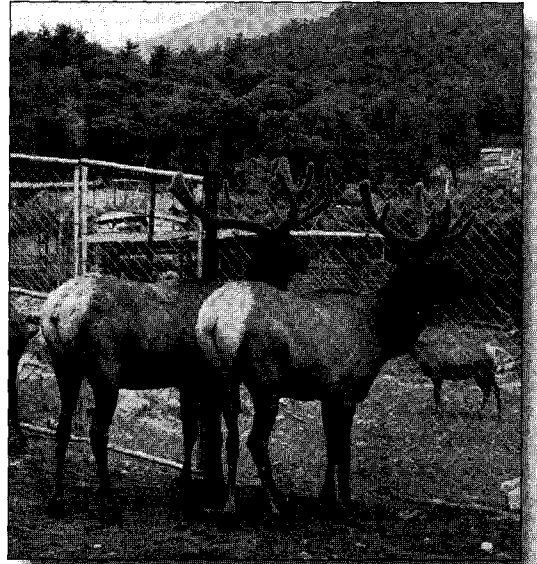
항은 건강상태이며 그 다음으로 외모와 녹용생산량 나이, 기타 숫사슴의 난폭성 등도 고려하여 종목을 선발한다.

- 종록의 나이는 만 3세 이상의 것이 좋으며 녹용의 생산량이 많은 것은 물론 상대쪽이 굵은 것을 이용한다.
- 품종간의 교잡에 의한 잡종번식에서 태어난 수컷을 종록으로 사용하면 열성인 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삼가한다.
- 수컷 한마리당 암컷의 비율은 15마리 이하가 바람직하며 암사슴의 수가 많으면 번식률이 낮아질 수 있다.
- 근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암수 모두를 같은 농장에서 구입하지 말고 자기농장의 종록도 근친번식이 되지 않게 2~3년을 주기로 종록을 바꾸어 준다.
- 신규 사슴농장의 경우 수컷종록의 나이는 암컷보다 1~2살 많은 사슴을 이용한다.

◇ 숫사슴의 번식력진단

먼저 숫사슴이 번식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보고 영구적인 불임이면 종록에서 골라내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불임이면 그 원인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한마리의 종록으로 증부를 하지 말고 예비종록을 확보해서 두마리의 종록을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는 번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숫사슴의 질병을 점검하여 질병이



▲ 숫사슴이 영구적인 불임일 경우 종록에서 골라내야 한다

있으면 치료를 하여 다른 사슴에 전파를 막는다. 그리고 암수의 비율을 낮게 (10두:1) 하는 것도 번식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숫사슴은 번식계절이 되면 자발적으로 사료의 섭취량이 줄어들며 아울러 급격한 체중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절각후부터 종록의 경우는 사료의 급여량을 늘려주며 발굽손질을 하여 승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주며 특히 단백질 사료를 과다하게 장기간 급여한 경우 수컷 생식기의 표피에 염증이 나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미리 점검을 하여 번식계절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해준다. **한국의양**